

그린란드 전면 접근권 꺼낸 트럼프...‘실리 최대화’

‘무력·관세’ 접근 유럽과 협상 속도 ‘골든돔 배치’ 가시권
중·러 영향력 확대 차단...그린란드 독점적 권한 확보 구상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 접근권’ (total access) 개념을 꺼내 들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그린란드 매입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하며 실리를 최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조치까지 예고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빠지기식’ 접근을 통해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인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등 전략적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포크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 접근권에 대해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I’m not going to have to pay anything) 이라고 말했다.

영토 주권 이전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비껴가면서도 골든돔 등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군사력과 관련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준(準)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면서 그린란드에 파병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에 선을 긋고 관세 부과 조치까지 점으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서며 실질적인 협상이 본격화에 오른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지정학적 요충지로 강조해 온 그린란드에 골든돔을 배치하는 구상이 급진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린란드에 접근권을 가질 때 그것(골든돔)은 훨씬 더 잘 작동한다. 더 넓은 영역을 더 정확하게 덮게 된다”며 “우리는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미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400~1천기의 관측·추적용 인공위성과 200기의 공격용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완성하기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은 일단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배치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하는 효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접근권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읽힌다. 연합뉴스



지난 22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누크 공항에 착륙한 에어 그린란드 여객기.

연합뉴스

日 중의원 해산, 내달 8일 총선...다카이치, 승부수 던져

일본 중의원(하원)이 해산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교통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누가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

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일컬어지지만, 이어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구심력을 급격히 잃을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도 불린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쥌 수 있지만, 목표치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